# 일본, 파트타임 근로자 사회보험 강화 방안 추진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(소득비례연금)과 건강보험(직장건강보험조합)의 적용대상에 이들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음.

- 금번 사회보험 확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기준은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상, 연수입 80만 엔 이상, 고용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함.
- 이 중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50만 명을 1단계 대상으로 하며, 2단계에서는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 기업의 파트타임 근로자 70~80만 명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임.
- 일본정부는 최종 법률 개정(안)을 확정하여 2012년에 정기국회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임.

■ 현재 정규직과 파견사원은 후생연금과 직장건강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,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, 연간 120만 엔 이상의 소득 요건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였음.

- 그러나 동 법률(안)이 통과되어 기준에 미달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후생연금과 직장건강보험조합 의무가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의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임.
-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 130만 엔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서 후생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은 약 8만 4,000엔이 절감되는 반면, 연금액은 약 17만 엔 증가함.

■ 한편,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할 예정이며, 기업의 급격한 부담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-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1단계에서 800억 엔, 제2단계에서 1,600억 엔 정도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임.
- 일본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종이나 외식업종의 적용확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, 필요하다면 특별한 지원정책도 검토 중에 있음.

(아사히신문, 마이니치신문, 니혼게이자이신문 3/7 등 종합)